

Weekly Market Report

Oct 4, 2022

본 리포트는 해운시황 이해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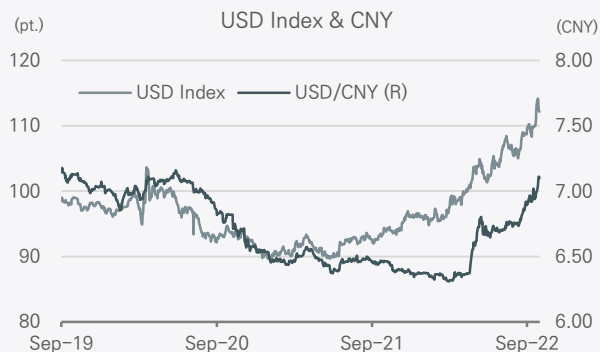
Weekly Summary

	Drybulker	중국 10.1~7 휴무 (우리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Tanker	전 선형 하향 조정
	Container	2,000은 스물두달 만이지
	Sale & Purchase	활발한 중고선 거래

※ '22.10월
KOBK 컨선운임지수(KCCI)
발표 (5p)

Macro 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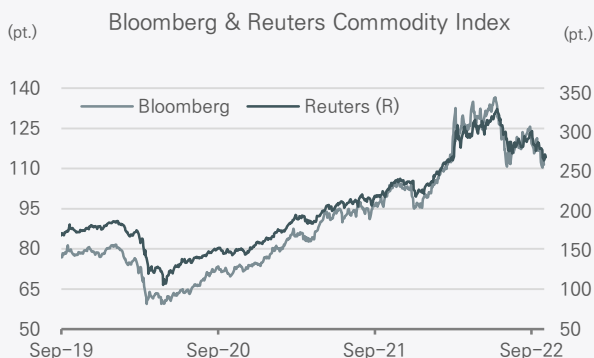
Foreign Exchange



Interest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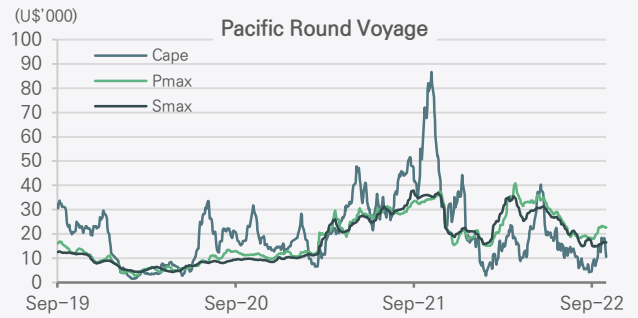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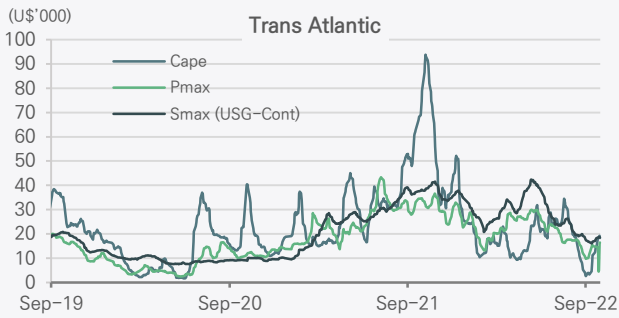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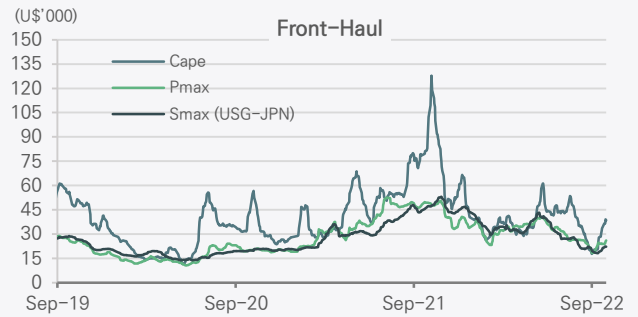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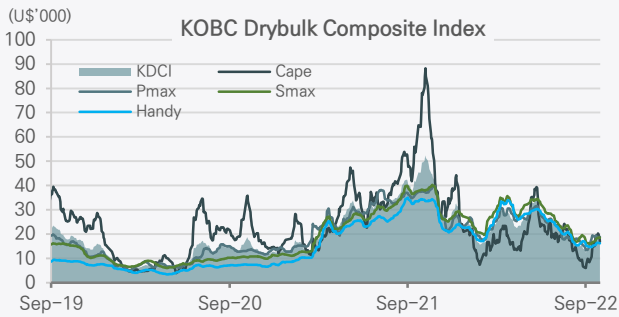


Commodity Index



Stock Market





	KDCI	Cape				Panamax				Supramax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평균	F/H	T/A	Pac RV
9/30	17,835	16,858	38,500	18,275	10,561	18,855	26,060	16,490	22,540	18,392	22,157	18,500	16,447
9/23	18,345	18,554	34,325	15,250	16,138	18,850	23,910	14,500	23,040	18,285	21,414	18,243	16,587
증 감	▲ 510	▲ 1,696	▲ 4,175	▲ 3,025	▲ -5,577	▲ 5	▲ 2,150	▲ 1,990	▲ 500	▲ 107	▲ 743	▲ 257	▲ 140

Cape 7일간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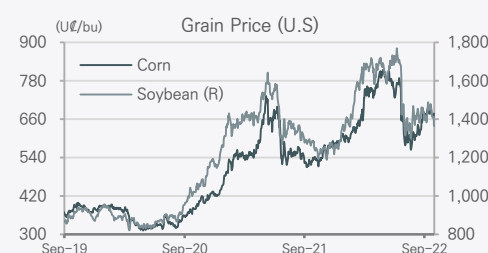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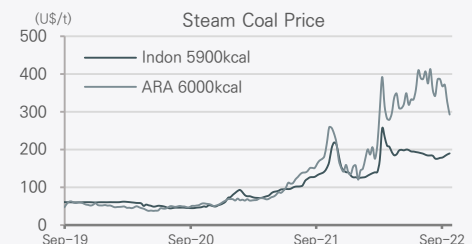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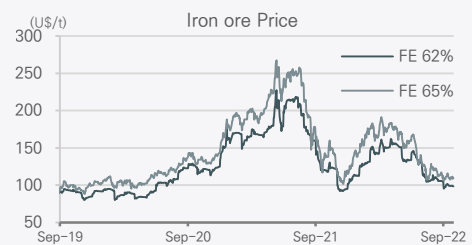
- 대서양은 브라질의 10월 선적 화물 유입 및 북대서양 선박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태평양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이전 철광석 재고 확보 수요가 일단락되며 전반적인 약세 구현
- 국제 철광석 가격이 톤당 90불 대로 하락하자 그간 구매를 미뤘던 제철소들이 물량 확보 시도 - 그러나 중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환율 평가 절하로 구매력이 약화된 점은 수입 회복을 제한
- 중국의 국경절 이후에도 철강 수요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철광석 물동량을 압박 중
- 최근 중국의 건설용 철강 수요는 정부의 미완공 주택 완공 지원 정책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규 주택 건설 및 판매 부진으로 인해 철강 수요 회복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이번 주 내내(10.1~7) 중국의 국경절 휴무가 이어지며 활동성 부진에 따른 약보합세 구현 전망 되나, 대서양 내 국지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승 가능성 존재함

P'max 크러싱 마진 개선

- 케이프와 마찬가지로 대서양 상승, 태평양 하락의 패턴을 구현. 그러나 아시아항 곡물 및 유럽항 석탄 수요 강세에 힘입은 대서양의 상승세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며 주간 상승
- 중국의 대두박 재고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대두 분쇄가공 마진을 개선시켜 수입 수요 확대
- 중국의 대두 분쇄가공 마진은 연초 이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대두 수입 및 가공 감소
- 그러나 국경절 연휴 이전 돈육 판매가 증가하자 양돈 사료 수요가 확대되며 대두 수요 증가
- 이는 수확철을 맞은 미국산 대두와 9월 중 한시적으로 대두 수출에 특혜 환율을 적용한 아르헨티나산 대두의 물동량 증가로 연결됨
-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유럽의 석탄 수요 확대 본격화도 시장을 지지함
- 독일 정부, 지난주 노후석탄발전소 재가동 세부 계획을 승인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기로 함
- 또한 러시아의 유럽항 가스관 노드스트림1과 2에서 지난주 고의가 의심되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점도 대체 에너지로서의 석탄 확보 수요를 자극
- 금주 대서양 수역의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 휴무에 따른 활동성 감소로 태평양 소재 선박들의 남미항 ballasting이 증가하며 태평양의 공급 압력이 대서양으로 전이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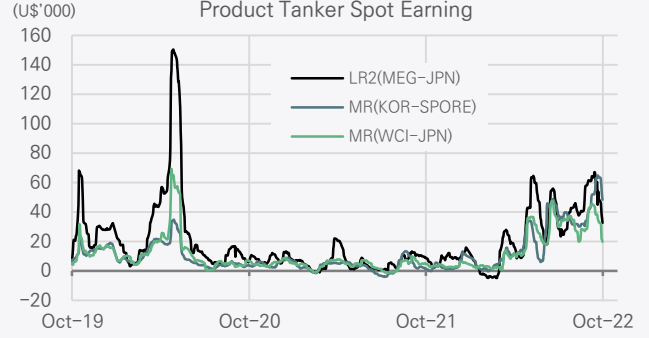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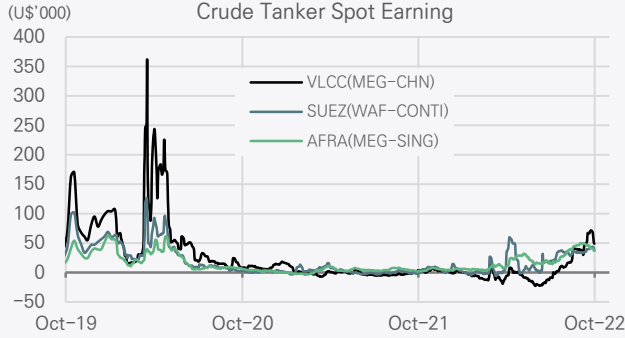
S'max 일단 정리

- 남미와 흑해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USG와 태평양의 하락이 추가 상승을 제한하며 강보합세 구현
- 중국의 국경절 연휴 도래에 따른 활동성 감소로 태평양은 전반적인 하락세 전환
- 중국 석탄 수입자들은 10월 16일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석탄 관련 정책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을 주시하며 추가 구매 보류 중
-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로 철강 수출가격이 하락하였으나, 터키 등 중국산 철강의 주요 수입국들의 환율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구현하고 있어 실제 수출 증대효과는 미미
- 오히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 및 글로벌 경기 부진이 철강 수출을 제한
- 이번주 태평양 중심의 수요 침체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약보합세 구현될 것으로 예상됨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Global Market Focus

Tanker Spot Earning



	VLCC (MEG-China)	Suezmax (WAF-Cont.)	Aframax (MEG-SGP)	LR2 (MEG-JPN)	MR (KOR-SGP)*
WS	84.14 ▼ 19.68	129.32 ▼ 10.23	200.31 ▼ 13.44	185.00 ▼ 48.75	38.38 ▼ 9.14
TCE(US\$/day)	48,835 ▼ 22,588	37,729 ▼ 4,575	36,731 ▼ 4,652	32,543 ▼ 15,810	48,307 ▼ 15,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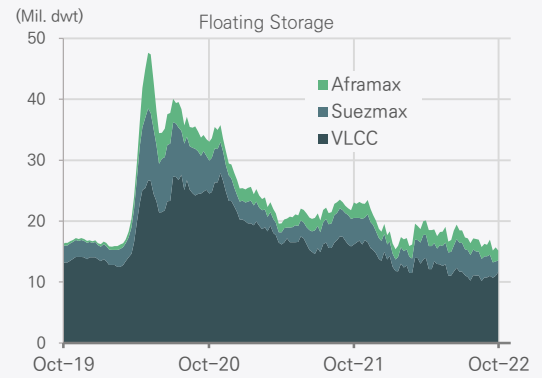
원유선

- VLCC: 대서양/아시아 구간 화물 유입 감소 및 중동항 공선 유입 증가하며 운임 조정폭 확대. 물동량 둔화 양상 구현에 단기시황 약보합세 유지 전망
- Laden/Ballast Spread(중동기준, AIS)도 9월 중순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
- Suezmax: 상위 선형 약세 및 화물 유입 감소에 서아프리카/유럽 구간 하락
- Aframax: 중동/동남아 구간 물동량 둔화 계속되며 9월 이후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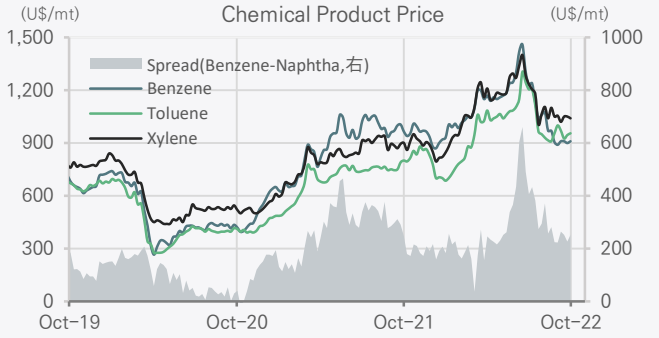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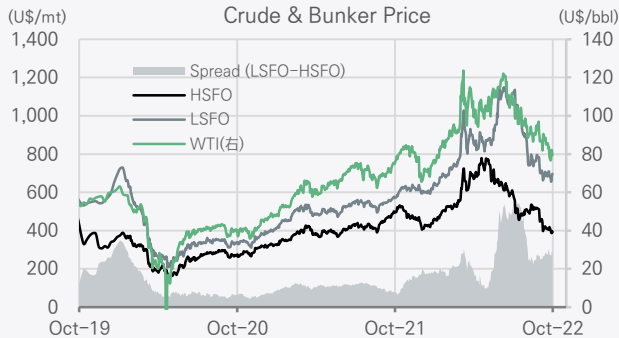
제품선

- LR: 아시아/유럽 구간 차익거래 감소에 중동 내 가용 선박 증가. 동북아항 남사 물동량 둔화도 지속되며 중동/동북아 구간 WS 주간 21% 하락 조정
- 반면 유럽 내 정제설비 유지보수 증가 및 프랑스·영국 등 잇단 파업에 경유 공급 차질 및 가격 상승 예상. 차익거래 유인하며 추가 하락폭을 제한할 것
- MR: 중국 연휴에 따른 역내 화물 유입 감소 및 상위 선형 약세에 운임 하락
- 중국 석유제품 수출 쿼터 확대에 따른 물동량 증가 전망은 시황 지지 요인

※ MR(KOR-SGP)운임: US\$/mt



Crude & Product Price



	WTI	HSFO	LSFO	Spread
가격*	79.49	390.00	696.00	306.00
증 감	▲ 0.75	▼ 28.00	▲ 6.00	▲ 34.00

	Benzene	Toluene	Xylene
가격	910 ▲ 10	955 ▲ 10	1040 ▼ 10
Spread*	251 ▲ 25	296 ▲ 25	381 ▲ 5

※ Bunker Price : Singapore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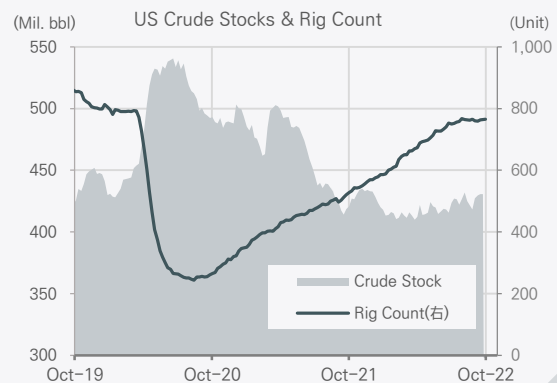
※ Spread : Naphtha 대비 편차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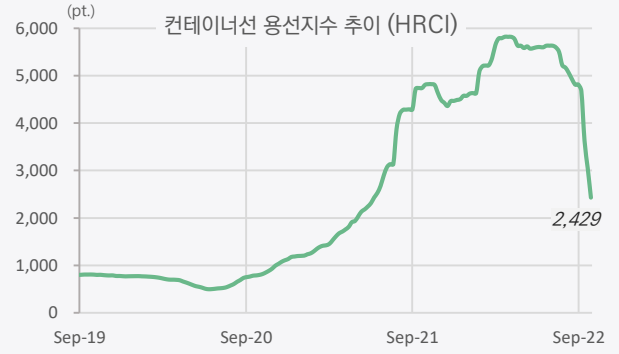
- 미국 석유 생산 차질 및 유럽 가스관 유출 사고에 주간 WTI 상승 마감
- 미국은 허리케인 이언 상륙 여파로 멕시코만 석유 생산 조업 일시 중단
-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파손으로 대규모 가스 유출 사고 발생(9.27일).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수요 유입 전망
- 미국 원유 상업 재고는 주간 22만 배럴 감소. 휘발유와 중간유분 재고도 정제가동률 하락 및 수요 증가로 인해 각각 242만, 289만 배럴 감소
- 전략비축유 방출(458만 배럴), 정제가동률 하락(3%)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 감소(10만 b/d) 및 수출 증가(111만 b/d)는 상업 재고 감소 야기
- OPEC+, 10월 정례회에서 생산목표 조정 전망. 100만 b/d 이상 수준의 대규모 감산 가능성도 제기. 석유 공급 감소 우려 증대는 유가 상승압력

연료유가

- 원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LSFO도 소폭 상승. 반면 HSFO는 재고증가로 하락하며 유종 간 Spread 주간 12.5% 확대 (8월 평균 \$264, 9월 \$276)



※ 자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KOBC 패널리스트, GMP



항로별 운임지수

용선 성악

항로	금주	전주	+/-	'22평균	+/-
美서안	2,399	2,684	▼ -285	7,507	▼ 5,108
美동안	6,159	6,538	▼ -379	10,310	▼ 4,151
유럽	2,950	3,163	▼ -213	6,262	▼ 3,312
지중해	2,999	3,249	▼ -250	6,669	▼ 3,670
동남아	348	386	▼ -38	1,100	▼ 752
중동	912	988	▼ -76	2,984	▼ 2,072
호주	1,850	1,956	▼ -106	3,634	▼ 1,784
남미	5,025	5,479	▼ -454	8,142	▼ 3,117
日서안	311	325	▼ -14	330	▼ 19
日동안	301	302	▼ -1	323	▼ 22
한국	262	265	▼ -3	356	▼ 94
동서Africa	4,811	4,979	▼ -168	6,561	▼ 1,750
남Africa	4,407	4,532	▼ -125	5,664	▼ 1,257

선형	건조*	기간	\$/Day	+/-**	성악 주차
피더 700	C	5개월	18,000	▼ 12,000	9월4주
피더 1,100	A	13개월	28,000	▼ 4,000	9월1주
피더 1,600	A	11개월	35,000	▲ 8,000	9월3주
피더 2,200	A	12개월	70,000	▼ 15,000	7월4주
피더 2,700	A	24개월	58,500	▲ 16,500	8월4주
내로우빔 5,000	A	21개월	53,000	▲ 5,000	9월3주
와이드빔 5,500	B	12개월	20,000	▼ 52,500	6월1주
중형 7,000	A	60개월	44,000	▲ 22,500	9월2주
중형 9,000	B	48개월	52,000	▼ 12,000	5월3주

*A : '05년 이후 / B : '01 ~ '05년 / C : '01년 이전 **직전 성악 대비

시장 동향

- '22년 39주(9.26~9.30) SCFI 종합지수 '1,923p' 기록. 주요 항로 약세 이어지며 SCFI 16주 연속 하락
 - SCFI, 22개월만에 2,000pt 붕괴. 8월 정시성은 46.2%(전년비 ▲12.7%p, 전월비 ▲5.9%p)를 기록하며 수요 위축에 따른 물량 감소로 정체 개선. S&P는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강달러 기조로 인해 중국발 수출 신장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주요 항만의 정체 개선은 주간 실질 공급 증대 효과를 유발, 이때 수요가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운임 하방 압력은 더욱 증가할 것
 - 10월 운임 약세 지속 예상. 단, 선사들의 적극적인 선박량 조절 추진에 따라 9월 대비 낙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美 서안 항로 20주 연속 하락, 동안 항로 19주 연속 하락
 - 수요 부진으로 CUL, Matson, CMACGM 등의 선사는 일부 미서안 서비스를 철수하며 공급 감축을 진행
 - 동안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물동량을 보이며 정체 지속. 동부 사바나항 체선은 현재 42척으로 전주대비 6척 증가
 - ILWU(미서부항만노조) 소속 시애틀, 타코마, 오클랜드항에서는 계약 종료(7/1) 이후 첫 대업 발생. 업무 개시 및 야간 교대 지연의 형태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벌어진 첫 단체 행동으로 긴장 고조
 - * 8월 정시성: 서안 29.5%(전년비 ▲19.6%p, 전월비 ▲2.9%p), 동안 17.2%(전년비 ▼0.7%p, 전월비 ▲1.5%p)
- 유럽 항로 18주 연속 하락
 - 재고 증가, 물가 상승, 에너지 문제가 계속되며 부진 지속,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8월 정시성: 유럽 30.5%(전년비 ▲7.0%p, 전년비 ▼0.3%p), 지중해 33.7%(전년비 ▲1.8%p, 전월비 ▼2.3%p)
 - 영국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기조에 동조하며 기준 금리를 2.25%로 0.5%p 인상. 9월 독일 제조업 PMI 45.9, 유로존 48.2 등 주요 PMI 지표가 50을 밑돌며 경기 위축세를 반영
- 동남아 항로 13주 연속 하락
 - 세계적인 수요 위축의 여파로 동남아항 원부원료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량은 증가하며 운임 약세 지속
 - 8월 중동항로 정시성은 29%(전년비 ▲15%p, 전월비 ▲2.5%p), 인도 36.9%(전년비 ▲20.4%p, 전월비 ▲1.7%p)를 기록하며 개선

주요 뉴스

- 『MSC,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 개시』 (Supply Chain Dive_22.9.28)
 - 팬데믹 이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은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 머스크는 올해 4월 머스크 에어 카고를 설립했으며, CMA CGM은 5월 에어프랑스와 10년 간 전략적 제휴 체결. MSC도 올해 1월 주문했던 항공기 4대를 활용하여 내년 초부터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주요 항로에 걸쳐 다양한 산업 부문에 확대된 서비스 제공
- 『스팟운임 급락으로 아시아발 유럽항 장기계약 운임에도 하방 압력』 (JOC_22.9.29)
 - 최근 유럽의 수요 둔화로 운임이 급락하면서 아시아발 북유럽항 스팟운임과 장기운송 계약운임 간 격차가 확대되는 중. 선사들은 올해 초 높은 운임 수준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며 기대수익을 높였는데, 최근 장기 계약운임에도 하방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화주들은 급변하는 시장을 반영하여 선사들과 장기계약 조건의 조정을 시도하는 중. 반면 선사들은 운임 유지를 위해 임시결항을 통해 선박량을 조절하고 있으나 운임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

KOBK Container Composite Index

October 4, 2022

KOBK Container Composite Index (KCCI)

Oct. '22

M-o-M (+/-)

Y-o-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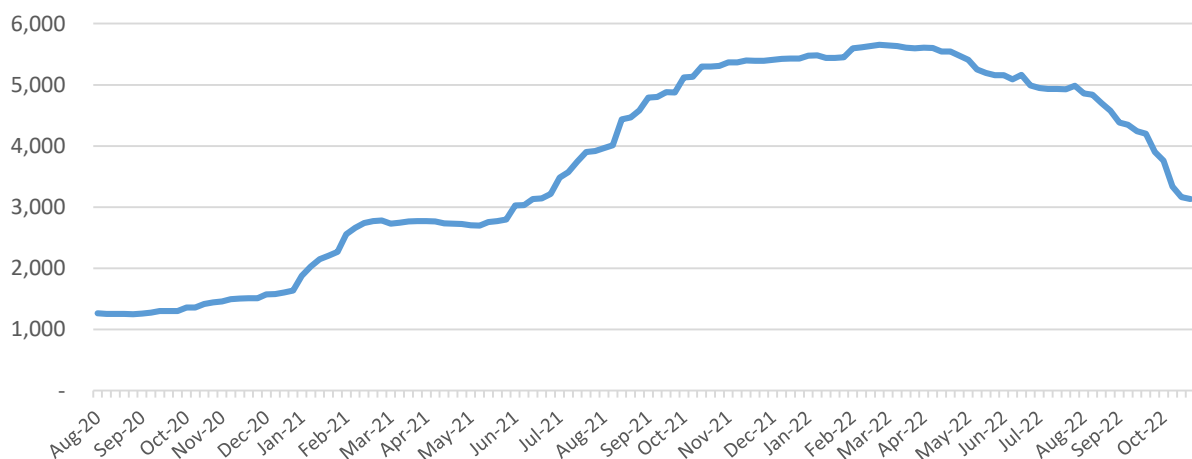
3,349.0

▼ 926.2

▼ 1,883.0

	Code	Route	Destination	Weight	Freight		M-o-M (+/-)		Y-o-Y (+/-)
Intra Asia	KCI	CHN	Shanghai	25%	427	▲	3	▲	306
	KJI	JPN	Tokyo	10%	1,068	▼	4	▲	256
	KSEI	SE Asia	Hochiminh	15%	1,625	▼	39	▲	497
EW / NS	KEWI	EW(ME)	Jebel Ali	5%	4,291	▼	993	▼	2,343
	KSNI	NS(AUS)	Sydney, Melbourne	5%	5,716	▼	831	▼	1,932
Ocean	KUWI	USWC	LA, LB, Oakland	20%	4,413	▼	2,340	▼	4,523
	KUEI	USEC	NY, Savannah, Charleston, Norfolk	5%	8,183	▼	1,552	▼	2,728
	KNEI	N.Eur	Hamburg, Rotterdam, Antwerp, Felixstowe	10%	7,406	▼	1,811	▼	5,209
	KMEI	Med	Valencia, Barcelona, Genoa, Napoli	5%	7,178	▼	2,058	▼	5,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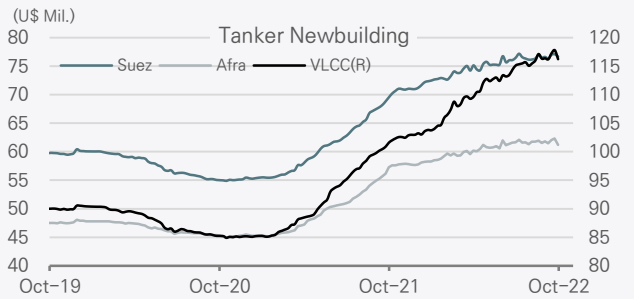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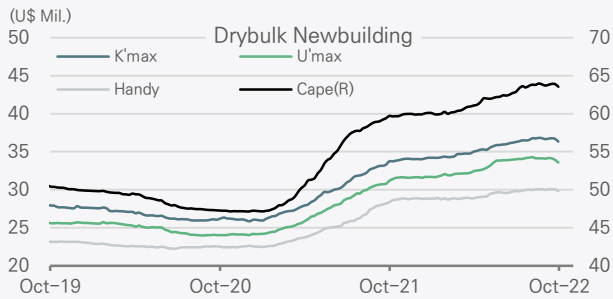
KOBK Container Composite Index



- 10월 KCCI 종합지수, 전월 대비 926.2pt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1,883.0pt 하락
- 9월 글로벌 수요 위축 및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운임 하락이 지속되며 종합지수 약세
- * 각 항로 별 지수는 발표일 전월 신고 운임 기준이며, 정정 신고에 따라 전월 운임 변경될 수 있음

Newbuilding & Re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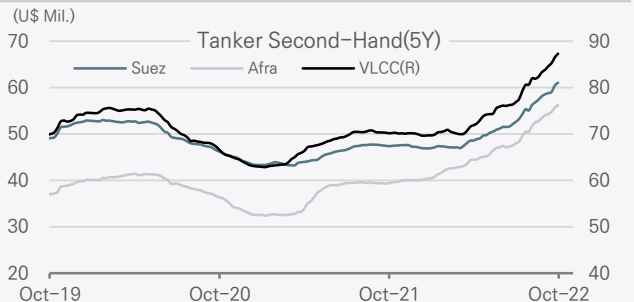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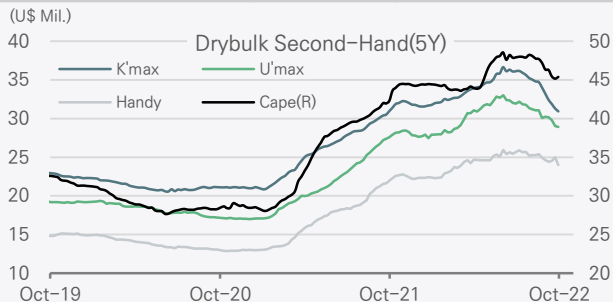
Type		DWT	Newbuilding				Resale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63.55	▼ 0.36	62.09	55.18	58.31	▼ 0.12	60.31	53.02
	Kamsarmax	82K	36.35	▼ 0.36	35.64	30.78	36.95	▼ 0.31	40.41	33.18
	Ultramax	64K	33.57	▼ 0.37	33.19	28.54	35.91	▼ 0.34	37.78	30.58
	Handy	33K	29.85	▼ 0.21	29.43	25.96	29.51	▼ 0.11	30.30	25.24
Tanker	VLCC	310K	116.25	▼ 1.58	112.14	95.04	113.25	▲ 0.63	102.44	94.02
	Suezmax	160K	76.70	▼ 0.43	75.31	63.74	80.31	▲ 0.34	72.06	63.40
	Aframax	105K	61.23	▼ 1.09	60.73	51.88	69.03	▲ 0.74	60.59	51.26



Type	Size	Buyer	Builder	Price	No.	Delivery	Remarks
Tanker	7,450 DWT	COSCO PetroChina	Chongqing Chuandong	-	1	'24	
Tanker	6,300 DWT	COSCO PetroChina	Chongqing Chuandong	-	1	'24	
LNG Carrier	175,000 CBM	China Merchants Shpg	Dalian Shipbuilding	\$200m	2	'26	

Second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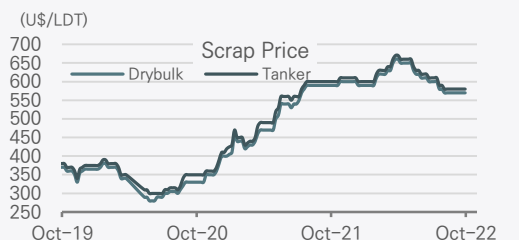
Type	DWT	5 Years Old				10 Years Old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Drybulk	Cape	180K	45.40	▲ 0.23	45.98	38.08	30.09	▼ 0.49	32.82	27.54
	Kamsarmax	82K	30.94	▼ 0.38	34.06	27.60	22.13	▼ 0.42	24.77	19.46
	Ultramax	64K	28.91	▼ 0.14	30.60	23.40	20.16	▼ 0.14	21.56	16.54
	Handy	33K	23.98	▼ 0.99	24.56	18.52	16.67	▼ 0.04	17.12	12.29
Tanker	VLCC	310K	87.30	▲ 0.78	76.08	68.22	61.98	▲ 1.31	51.66	45.96
	Suezmax	160K	61.08	▲ 0.59	51.86	45.99	44.25	▲ 0.48	35.97	30.59
	Aframax	105K	56.21	▲ 0.53	47.23	37.58	41.00	▲ 0.56	31.87	24.03



Type	Vessel	Size	Built	Builder	Price	Buyer
Tanker	VINGA	158,982 DWT	2012	Samsung HI	\$42m	Greek buyers
Tanker	KEROS VOYAGER	105,585 DWT	2008	Hyundai HI(Ulsan)	\$35m	Middle Eastern buyers
Bulker	PEDHOULAS TRADER	82,214 DWT	2006	Tsuneishi Zosen	\$16m	Undisclosed

Scrap Price

	India				Bangladesh			
	금주	+/-	'22평균	'21평균	금주	+/-	'22평균	'21평균
Bulker	560	-	600	507	570	-	608	533
Tanker	570	-	610	517	580	-	618	544



용 어	해 설
공선	선박이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
내로우빔 (Narrow Beam)	좁은 선폭의 선박
샴시 (Chassi)	컨테이너를 탑재하여 일체화되는 트레일러의 대차
와이드빔 (Wide Beam)	넓은 선폭의 선박
용선료	선박을 빌리고(용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선주에게 지불되는 금액
용선주	선박을 용선하는(대여받는) 자
정시성	정기선의 운항일정 준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공표 일정 대비 실제 운항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
Aframax	재화중량톤(DWT) 8~12만톤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ARA (Amsterdam-Rotterdam-Antwerp)	유럽의 주요 수출입 항구,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앤트워프의 약자
Ballast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안정성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해 해수를 선박에 싣는 행위
Cape	재화중량톤(DWT) 10만톤 이상의 대형 건화물선으로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
CBM (Cubic Meter)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 단위
DWT (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
F/H (Front Haul)	다수의 화물수송이 이루어지는 선종별 주 수송구간(건화물선 대서양→태평양)
FE	‘철’을 의미하는 ferro의 약어. 보통 철광석의 철분 함량을 표시 (FE 62%)
Feeder	대형 항만과 인근 중소형 항만 간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서비스 또는 선박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4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1FEU=2TEU
FFA (Forward Freight Agreement)	운임선도거래. 미래 특정 기간의 운임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하여 계약하는 거래
Handy	재화중량톤(DWT) 4만톤 미만의 소형 건화물선
HRC (Hot Rolled Coil)	열연강판. 철 슬라브를 압연하여 생산한 1차 제품으로 냉연강판, 강관 등의 소재로 쓰임
HRCI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호이-로빈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HSFO (High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초과 / 3.5% 이하인 고유황 연료유
Indon	인도네시아
Kamsarmax	재화중량톤(DWT) 8~9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LA/LB (Los Angeles/Long Beach)	미국 서부 대표 항만인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을 의미
LDT (Light Displacement Tonnage)	경화배수톤. 화물을 제외한 선박자체의 중량으로 선박 해체 매각 시 지급하는 선가의 기준
LR2 (Long Range2)	재화중량톤(DWT) 8~12만톤급 유조선으로 주로 석유제품을 운송
LSFO (Low Sulfur Fuel Oil)	유황성분의 함량이 0.5%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
MR (Medium Range)	재화중량톤(DWT) 4~6만톤 규모의 유조선으로 석유제품을 운송
Pac RV (Pacific Round Voyage)	태평양 역내를 왕복 운항하는 순환 항로
Panamax	재화중량톤(DWT) 7~8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담당자 대상 설문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
Rebar (Reinforcing bar)	철근
SB (ShipBuilding)	조선(소)
SCFI (Shanghai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uezmax	재화중량톤(DWT) 12~20만톤급 원유 운반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유조선
T/A (Trans Atlantic)	대서양 역내를 운항하는 항로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길이 20피트(fee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
Ultramax	재화중량톤(DWT) 6~7만톤 규모의 건화물선
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재화중량톤(DWT) 20만톤 이상 초대형 원유운반선
WS (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	주요 항로별 기준 운임율(Flat Rate)을 상대지수로 나타낸 지표
WTI (West Texas Intermediate)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영국 북해의 브렌트유, 중동의 두바이유와 함께 세계 3대 유종

KOBC Drybulk Panelists

	Ilido Chartering		Jangsoo Shipping		Flaship		Ascent Bulk
	Daesang Shipping		Basim Chartering		Max-Bridge		Greatwall International
	Ace Chartering		Kaya Shipping		Interlink		Optima International Shanghai
	M.I.T Chartering & Agency		Good Turn Transportation		Evershine Consulting		Ocean Robin Shipping
	Howe Robinson Singapore		OHY Shipping		BNS Shipping		

KOBC Tanker Panelists

	Presco International		Reshamwala Shipbrokers		Neostar Maritime		SSY London
	KOEL International		Hans Shipping		Nav Maritime		Seoul Line

KOBC Container Panelists

	Unico Logistics		Pactra International		Eunsan Shipping & Aircargo		Euroline Global
	Taewoong Logistics		Samsung SDS		Hyundai Glovis		Ramses
	CJ Logistics		LX Pantos				

KOBC S&P Panelists

	Gyro Maritime		Forocean Shipbroking		Hanwon Maritime		Pioneer Shipbrokers (Vietnam)
	Hanbada Corporation		Wirana Shipping Corporation		Fides Corp.		Harvest Shipbrokers
	Kims Maritime		GMS Korea		Maxmart Shipping & Trading		SSY London
	Haidely Shipping		STL Shipping		HIT Marine Company		Reshamwala Shipbrokers
	Seasure Shipbroking		Mcquilling				